

“키운 닭, 먹느냐vs마느냐”... ‘식량일기’의 난제 극복



tvN표 차별화된 힐링 프로그램 탄생 도시농부 7인의 농사 성장기 그려

tvN표 색다른 관찰예능이 차별화된 힐링 프로그램의 탄생을 알렸다. 5월30일 오후 tvN 새 예능프로그램 '식량일기 닭볶음탕 편'이 베일을 벗었다. 이 프로그램은 농부가 된 연예인들의 농장 라이프를 담은 리얼리티 관찰 예능으로, 닭볶음탕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도시농부 7인의 농사 성장기를 그린다. 닭볶음탕 당 한 그릇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직접 키워 음식으로 만들기까지의 전 과정을 그리면서 식량의 소중함을 일깨운다는 취지다.

가수 보이부터 방송인 서정훈, 개그맨 이수근과 박성광, 그룹 NCT의 대용, 걸그룹 오마이걸의 유아, 독일 출신 방송인 니까지, 7인의 멤버는 농부로 변신해 활약을 펼친다. 이들은 '식량일기'를 위해 일구어진 농장에 머물며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다양한 식재료를 직접 생산하는 과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날 베일을 벗은 첫 방송에서는 먼저 멤버 7인이 마트와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해 닭볶음탕을 만드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키운 식재료를 통해 닭볶음탕을 완성해야 하는 최종 과제를 부여 받고 난제에 휩싸이고 말았다. 이는 바로 정성스럽게 키운 닭을 잡아먹을 수 없다는 것.

유이는 "묘이 주고 사랑으로 키운 병어리인데"라며 울상을 지었고, 서정훈 역시 "직접 키운 닭을 잡아먹기에는..."이라며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이는 다른 멤버들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이수근은 "먹으려고 키운 닭인데 어쩌겠느냐"라며 설득했지만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려운 사안이었다. 결국 진중권 교수와 최훈 교수가 '키른 닭을 먹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토론을 펼치는 모습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윽고 멤버들은 직접 달걀 10개

를 골라 부화기를 설치, 병어리의 탄생을 기다렸다. 병어리가 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1일, 10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알에서 태동은 느껴졌고 멤버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며 생명의 신비로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편 멤버들이 부화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식량일기' 제작진은 도심 속 농장을 가꿔 본격적인 농사 라이프의 시작을 알렸다. 멤버들 각자 10개의 달걀 중 2~3개의 알에서 부화가 이뤄졌고 이들은 부화기와 태어난 병어리들을 데리고 합숙소로 한 데 모였다.

농장 라이프인 만큼 고된 농사일도 곧바로 시작됐다. 편한 옷과 발을 위한 장화 등 복장을 갖춘 도시농부 7인은 삼질을 통해 땅을 갈고, 퇴비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물주기까지 일련의 농사 과정을 직접 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대체로 배려를 지닌 도시농부 7인의 케미와 최훈 교수와 최영진 교수의 신사적인 조언이 편안한 힐링까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색다른 관찰예능의 새 장을 연 모양이다.

그러지만 '식량일기'는 방송 전부터 제기됐던 우려의 시선을 피하지는 못했다. 방송 이후 누리꾼들은 직접 키운 닭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는 점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알에서 깨어나는 부화 과정부터 닭으로 성장해갈 병어리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만큼 이 설정 자체가 잔인하다는 것.

그러나 앞서 지난 25일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정성원 PD는 이 같은 우려의 시선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쉽게 구해서 먹는 식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오는 것인지 집중 조명해 보는 것이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강조하며 "먹느냐 마느냐의 고민은 출연자들과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로 끝까지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재료의 원천을 집중 조명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지만, 애정 어린 손길로 키운 닭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 앞으로 '식량일기'가 이 같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차별화된 힐링 예능으로 자리를 잡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영원히 다섯이 함께”... ‘라스’ 사이니,故 종현 향한 진심

그룹 사이니가 컴백 후 첫 토크쇼인 '라디오스타'에서 지난 6개월의 이야기를 털어냈다. 5월30일 밤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SHINee's back' 특집으로 꾸며져 사이니 운유, 민호, 키, 태민이 출연했다.

11년 차 아이들로 돌아온 사이니는 이날 더욱더 단단해진 모습과 연륜이 묻어나는 토크 실력을 선보였다. 이날 멤버들은 '라스'에서 활약할 것 같은 멤버로 태민을 뽑았다. 운유는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한 번씩 굉장한 게 터질 때가 있다. 평소에는 재미있지 않을 때가 많은데 생각지 못한 걸 터트릴 때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호도 "태민이가 점점 괴물이 되는 거 같다. '애는 괴물이다'라고 느낀 게 형들의 장난질

을 모두 흡수하더라. 흡수한 걸 다 해서 특이적인 캐릭터가 나왔다"며 "뚝뚝 뺄는 말이나 장난까지도 하는 걸 보면서 모든 걸 흡수했구나 싶었다"고 밝혔다. 이에 태민은 "원래 내성적이고 말도 없었는데 멤버들하고 있으면서 성격도 변하고 닭아가는 거 같다"며 멤버들의 말을 인정했다.

실제로 이날 태민은 거침없는 폭로로 멤버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태민은 키의 도벽(?)을 폭로하고, 일상이 흑역사인 운유의 버지(?)까지 공개했다. 또 화장실을 하도 자주 가서 생긴 '똥땀'이라는 별명에 대해서도 "직장이다 먹으면 화장실에 바로 간다. 변비에 걸린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이어 '보태솔로'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팬분들

이 안 좋아하지만 보태솔로는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키와 민호, 운유도 뒤지지 않는 입담을 펼쳤다. 키는 과거 '라스' 출연 후 달라진 예능 스타일을 털어놓고, 멤버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3인칭 시점의 대화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SM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똥똥하더라' 말을 들었다며 "다이어트를 안 해본 게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키는 "덴마크 입후도 다이어트 도시락에 탄수화물도 다 끊어보고 약도 먹어봤다"며 "가장 효과적인 건 안 먹는 거다. 난 점차 탄수화물을 줄여서 1년 넘게 안 먹었다. 정제된 탄수화물만 피하면 금방 살 빠진다"며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했다.

민호는 승부욕을 자극하는 MC들



때문에 '민호 금지 영상'인 '불꽃'을 폭로해 폭소케 했다.

지 못했다. 눈물을 못 흘려서 삼당까지 받았다는 운유는 "처음에는 그랬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답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날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키는 "그 일 있고 나서 멤버들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담을 받았다. 계속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라스' 출연도 그렇고 바로 일본 콘서트를 했던 것도 그렇고 우리가 무너지게 된 계기라고 절대 볼 수도 없다. 이겨내기는 표현도 그렇지만 빨리 인정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타인이 얘기 꺼내는 것보다 우리 입으로 우리가 한 번은 짚어야 한다는 게 있었다"며 방송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최근 개최한 도쿄돔 콘서트에 대해서도 "힘을 위해서 한 것도 있고, 팬분들을 위해서 한 것도 있다. 형을 그리워하면서 좋은 곳으로 보내 줄 수 있는 공연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는 생각지도 못한 악플에 충격을 받았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악플이 달릴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 콘서트 한다는 기사가 났을 때 대중 가수로서 슬픔을 이용한다, '미케팅'으로 활용한다는 말이 너무 듣기 싫었다"고 토로했다.

태민은 "항상 남들을 위해서 좋은 걸 보여주자는 걸 추구해왔는데 이번 우리를 위해서 하고 싶다. '우리끼리 10년이나 해왔는데 결과가 뭐냐' 이 일을 못 이겨내면 멤버들이 떨어져 갈 거 같고 그렇게 되기는 싫으니까 이걸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이 컸던 거 같다"고 밝혔다.

민호는 "다 관찰을 수 없지만 무대 위에 있거나 노래할 때는 뽀뽀만 아니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저희도 더 힘이 나고 즐겁게 잘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당부했다.

MBC 부활 · SBS 난항, 미니시리즈 판도 변화

미니시리즈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1%대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고전하던 MBC는 부활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14일 첫 방송한 MBC 월화 미니시리즈 '검법남녀'는 4.9%로 출발 3주 만에 6.7%까지 치솟았다. 같은 주 첫 방송한 MBC 수목 미니시리즈 '이리와 안아줘'도 마찬가지로 3.1%로 시작 5.4%까지 올랐다. 반면 SBS 월화 미니시리즈 '기름진 멜로', 수목 미니시리즈 '훈남정음'은 고전 중이다.

MBC 드라마의 기사화생연 베테랑 배우들의 활약이 있다. '검법남녀'의 정재영, '이리와 안아줘'의 허준호. 정재영은 '검법남녀'에서 10년차 법의관 백범 역을 맡았다. 시종일관 호통치고 까칠하지만, 업무에선 철저하다. 그의 활약으로 억울한 이는 누명을 벗고, 숨겨져 있던 범인이 드러난다. 과파한 법의관 역을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이리와 안아줘'의 허준호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윤희재를 연기한다. 윤희재는 모든 사건의 중심으로, 허준호는 약인의 광기를 실감나게 펼쳐낸다. "허준호가 나

오면 공포물"이란 시청자 반응도 나올 정도. 주인공인 장기용·진기주가 신인 배우로서 풋풋함을 맡고 있다. 허준호는 32년차 배우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역할이 거듭될수록 주인공 남녀의 로맨스도 애뜻함을 더하고 있다.

◇ 환영 받지 못한 SBS 로코

SBS는 월화, 수목 모두 꼴찌로 내려앉았다. 서속황 작가의 신작 '기름진 멜로'는 제2의 '파스타'를 내다 봤지만 시청자 반응은 미지근하다. 방송 전 '기름진 멜로'는

중국 요리와 로맨스라는 2가지 키워드를 내세웠다. 배우들의 호연에도 불구하고 둘 다 시청자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주방 깔이 던지거나 워드로 사람을 내려치는 등 폭력적인 장면이나 노래방 도우미신 등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첫 방송한 '훈남정음'은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을 따른다. 상반된 처지에 놓인 두 남녀가 오해로 인연을 맺고 사랑을 키워나가는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소 진부하다는 평이 있지만, 아직 3회까지 방송됐다. 후반부로 갈수록 노련한 두 배우 남궁민·황정음의 뒷심이 발휘될 가능성도 있다.

◇ 형님들, MBC 부활 주도

오늘의 순세 2018년 6월 1일 금요일 (음력 4월 18일)

<p>▶쥐 지금은 모든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할 때다. 명예와 권력 욕심 때문에 돈 있는 여자를 가까이하다 구설에 오르고, 관제 수가 따른다. 7, 8, 9월생 흰색과 검은색을 함께 입으면 자신감이 생긴다.</p>	<p>▶물고기 그, 0, 2 성씨 적극적으로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남의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아량을 베풀라. 2, 5, 7월생 함께하는 자를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해 다툼이 생길 수다. 오늘은 투기적인 것에 손대지 말라.</p>	<p>▶물총새 그, 0, 2 성씨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침착하게 처신하라. 오가는 말에 현혹돼 허황한 꿈을 갖는 것은 시간 낭비임을 알라. 5, 7, 9월생 연하나 연상에 틀어 얽매이지 말고 자신 있게 단 곳에 눈을 돌려보는 것이 좋겠다.</p>
<p>▶개 상대방과 약속을 재확인하라. 자, 11, 12 성씨 믿는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하며 그동안 부린 씨앗을 아까워 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1, 3, 12월생 쥐, 닭, 용띠에게 의지하려 하지 말고 강한 마음을 가지라.</p>	<p>▶물고기 자신이 최고라는 자만심 때문에 믿고 따르던 자 마음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을 잊지 말라. 욕심이 더 큰 욕심을 낳는다. 0, 2, 4, 6, 8, 10월생 1000가지 재주보다 1가지 재주를 제대로 익혀야 좋다.</p>	<p>▶물총새 부부라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해도 쉽게 포기 말고 자신을 갖고 협력하라. 현재 남의 것은 보기 좋은 떡임을 알 것. 건축, 음식업, 수출업에는 지금이 부진하나 호전될 기미가 있으니 용기백배함이 좋겠다. 6, 11, 12월생 남의 말에 연루될 수 있으니 언행 조심.</p>
<p>▶물고기 그, 2, 4 성씨 잘못된 점을 빨리 고쳐야 더 큰 파문을 만든다. 순리대로 하라. 인간관계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7, 11월생 약속한 일을 훌려 넘기지 말고 신용을 지켜야 훗날 자신이 된다는 것을 알라.</p>	<p>▶물고기 좋은 재주를 많이 갖고 있어도 이용하지 못 하다니. 같고 다듬어 준비하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자급 운동이 힘들다면 돼지, 원숭이띠에게 조언을 청하라. 뜻을 이룬다. 5, 7, 8월생 그, 사, 11, 12월생 신경성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라.</p>	<p>▶물총새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려 하지만, 믿지 못하는 마음이 더 강하구나. 5, 8, 9월생 복잡한 것을 탈피하는 것은 좋으나 자신이 처리한 것은 스스로 해결하라. 7, 11, 12월생 믿고 따를 수 있는 뒷사람 면모를 보여야 사업과 가정에 평안함이 온다.</p>
<p>▶물고기 기쁨과 슬픔은 마음먹기에 달린 법이다. 기분에 따라 얼굴이 변하니 표정 관리를 잘 하라. 3, 6, 7월생 두 길을 가는데 상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화를 부른다.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판단색으로 단정에 안정을 찾고 가정에 신경 쓰라.</p>	<p>▶물고기 앞길을 닫는 것은 좋으나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3, 6, 10월생 남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자기 생활을 빼앗기면서까지 남을 돕는다면 실속 없는 행동이다. 자영업, 방송계, 보험설계사는 뜻을 펼칠 하루다.</p>	<p>▶물총새 기본 자체가 돼 있어야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는 것처럼 중심이 흔들리면 가정에서도 불화가 생긴다. 사, 0, 2, 4, 6, 8월생 중 자영업 하는 사람 되면 필수로 재물이 들어올 수. 4, 5, 6월생 검정색은 피하고 붉은 계열에 옷으로 단정함이 좋겠다.</p>